주 일 예 배

오전11시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Praise	다 같 이
통성기도	Prayer	다 같 이
신앙고백	주기도문	다 같 이
찬 송	Hymn 57	다 같 이
기 도	Prayer	이오현 집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 경	사무엘상 31:1-6	인 도 자
설 교	폼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	이진우 목사
찬송과봉헌	Hymn 233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기도 : 김상안 집사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 일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월-금)
수요성경공부	매수오후 7시 (예정)
가정교회예배	각 가정교회별로

교 회 를 섬 기 는 이 들

목 회 사역	이진우 목사
행 정 사역	박종갑 장로 남관희 집사
선 교 사역	서정길 장로 안찬호 성도
양 육 사역	Kaitlan Hronek
미디어 사역	윤지호 집사
친 교 사역	정순영 집사 이현미 집사
찬 양 사역	이오현 집사 서새롬

【자유교회 Vision 소개】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담임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성도가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가 지켜야할 지상최대의 명령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2007년 12월 30일 제74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METHODIST CHURCH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Methodist Church

716 E 56TH ST. TACOMA WA 98404
TEL (253) 661-5436, 227-1775
HOMEPAGE: WWW.JAYOOCHURCH.ORG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금주의 말씀요약

믿음생활이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믿음생활입니다. 물론 말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번 곰곰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식하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참으로 대단하고 엄청난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비웃음을 당하며 사는 이유가 무언인줄 아십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딤후3:5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네가 돌아서라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한 영향력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척만 하고 사실은 사람을 더 의식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향한 능력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한마다로 평가한다면 폼생폼사로 망한 인생입니다. 사람만 의식하며 살다가 결국 망한 인생입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의 첫 번째 불순종이 나옵니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대신 드려버립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민심을 휘어잡는 쇼였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사울이 평생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 다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상18:7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노랫소리 하나에 열 받아 가지고 평생 다윗만 죽이겠다고 따라 다니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귀 기울인 것은 여자 아이들의 노래 소리입니다. '내가 왕인데 왜 나한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느냐. 저런 놈은 죽여 없애야되.' 사람의 인기만 의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평생 다윗의 뒷꽁무니만 쫓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삶을 망하게 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을 의식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은 마지막 죽음조차도 사람을 의식하며 죽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그가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언뜻 듣기에는 대단히 용감하게 죽음을 선택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죽음조차도 사람들을 의식해요. 사람들을 의식해서 죽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던 방식대로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폼으로 살던 사람은 폼나게 죽으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은 믿음으로 죽습니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는 장차 어떻게 죽는 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죽을 때도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의 순간이 오면 기도의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평상시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도 말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멋대로 살다가 위기가 닥쳐오면 그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지요?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그러면 기도로 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풉니다. 평상시에 도박으로 풀던 사람은 도박으로 풀게 되어 있다고요. 평상시 술로 풀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술로 풀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사울의 죽음은 세상의 체면과 명예만 중요시 하는 비겁한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에는 도무지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 한 사울은 자살을 택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다윗은 비참한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택하였습니다. 사울의 어리석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죽는 순간에도 사람만 의식하였습니다. 사람만 두려워하였습니다. 마10: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것이 사울의 어리석음이자 사울의 비극입니다.

【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복음의 참 진리를 알기를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진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자유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진리를 사모합시다.**
2. **예배 후 2007년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3. **송구영신 친교모임은 내일(31일) 오후 8시에 송구영신 예배는 10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세족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4. **신년 가정심방을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원하시는 일자와 시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08년도 달력이나 교인주소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6. **설교 CD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보내드리고 싶은 곳이 있으면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설교시리즈도 가능합니다.(축복의 통로, 예수님의 비유, 요나서 강해, 룻기강해, 다윗강해)**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50.00	
감사헌금:	$997.00	
주일헌금:	$0.00	
특별헌금:	$0.00	**합 계: $1,047.00**

중보기도 제목

- 우리교회에 주신 오천 명을 먹이는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 장애우를 돕는 밀알선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장애우들에게 풍성하게 하옵소서.
- 북한의 땅에도 복음이 증거 되게 하시사 복음을 통해 민족의 통일이 앞당겨 지게 하옵소서.
- 샤론의 집을 통해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한인여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 도산 경로 대학을 통해 노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